

파괴에서 탈출까지

주요 등장 인물

코르누코프 (Kornukov) -아나톨리 코르누코프 장군, 당시 소콜 공군기지 (사할린 소재) 사령관. 1998년 1월 22일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코르누코프를 러시아의 신임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2002년 은퇴할 때까지 이 직위를 역임했다.

게라시멘코 (Gerasimenko) - 지휘관 대리, 41 비행 연대

노보셀레츠키 (Novoseletski)- 스미르니크 공군 기지 전투기 사단 참모장 대리

오시포비치 (Osipovich) - 겐나디 오시포비치 소령, 호출 부호가 805인 수호이 (Sukhoi) 15 플래건 (Flagon) 요격기 조종사

티토브닌 (Titovnin) -오시포비치 소령의 비행 관제관, 전투기 사단의 전투 통제실 소속

보여지는 시간들은 협정 세계 표준시 (UTC) 에 따른 것이다. 1983년 9월 1일 이른 아침, 사할린 영공이었다.

다음은 Rescue 007 (KAL 007 폴리지 않는 의혹들) 이란 책의 58 -65 (책과 약간의 차이는 있음, 한글본 68 -76) 페이지를 인용한 것이며, 러시아어 사본은 1993년 ICAO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해설 제공-버트 슬로스 버그

오시포비치 소령은 사할린 섬의 소콜 공군 기지로 귀환하면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러 소련군 레이더 기지에서 내린 결론은 아주 달랐다. 오시포비치가 보고하고 난 후 몇 초에 걸쳐, 그리고 나중에도 몇 분 동안, KAL 007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여전히 레이더에 잡혔다. 공중에서 폭발했다면 분명히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야 하는데 말이다. 더욱이 디지털 비행 자료 기록에 따르면 KAL 007의 고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다.

코르누코프: (18:26)

스크린에 목표물이 보이냐?

게라시멘코:

지금은 보입니다.

코르누코프:

그가 미사일을 두 발 다 발사했나, 한 발만 쏘았나?

게라시멘코:



둘

다입니다...

코르누코프:

미그 23을 불러들여.

코르누코프:

게라시멘코!

게라시멘코:

예.

코르누코프: (18:27)

명령이다... 미그 23을 불러 들어서 목표물을 파괴하라.

게라시멘코:

예, 알겠습니다.

코르누코프:

게라시멘코!

게라시멘코:

163 [미그 23을 가리킴] 에 후기 연소기를 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공격 위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르누코프:

알았다. 오시포비치는 미사일이 폭발하는 걸 봤나? 듣고 있나?

게라시멘코:

그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코르누코프:

그에게 물어봐. 직접 물어보란 말이다. 주파수 3번을 연결해서
오시포비치에게 물어봐. 폭발하는 걸 봤는지 못 봤는지 말이야.

게라시멘코: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미군 전자 정찰기 감청에 따르면 오시포비치는 오전 6시 27분에 "805,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 두 발 발사했다?" 라는 질문을 받았다.
오시포비치는 "둘 다 발사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미사일이 폭발한 지 채
2분이 되기 전에 그 여객기가 살아 남았을 거라는 우려가 다른 지휘소까지
퍼져 나갔다. 같은 6시 26분, 소련과 일본의 레이더 관측과 디지털 비행 자료
기록에 따르면, KAL 007은 정상 호흡이 가능한 고도로 가기 위해 5분 동안의
가속 하강을 시작했다. 스미르니크 공군 기지 사령관 노보셀레츠키 중령은
오시포비치 소령의 지상 관제관인 티토티닌에게 비행기 생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

노보셀레츠키: (18:28)

티토브닌, 무슨일인가?

티토브닌:

당장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노보셀레츠키:

글쎄,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니까, 누가 그를 인도했나, 조준을 했다면서 왜 격추시키지 않은거야?

티토브닌:

발사했습니다. 발사했습니다.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령 동지.

6시 28분, 코르누코프 장군은 KAL 007이 폭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종사가 조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게라시멘코:

목표물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르누코프:

목표물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고?

게라시멘코:

확실합니다.

코르누코프:

23 [미그] 을 불러들여 그것을 파괴하라!

6시 29분이 되자, 코르누코프 장군은 KAL 007을 격추하지 못한데 대해 격분한다. 그리고 게라시멘코 중령에게 폭언을 퍼붓는다.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게라시멘코:

동지, 우측으로 향했습니다.

코르누코프:

글쎄 알았어. 이해할 수가 없군. 왜 목표물이 날고 있는 거야? 미사일을 쏘잖아. 목표물이 왜 날고 있는 거야? [육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게라시멘코:

알겠습니다.

코르누코프:

이런, 내가 묻고 있잖아. 관제관에게 명령을 내리란 말이야. 거기 네 놈들 뭐가 잘못된 거야? 혀를 잘라 먹었어?

게라시멘코:

장군 동지, 참모장에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참모장은 관제관에게, 관제관은 그 명령을...

코르누코프: (18:30)

정보 하나가 전달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이런, 뭐야, [네놈은] 미사일을 발사한 결과 하나 제대로 못 물어보나, 어디야, 뭐야, [그놈은] 이해를 못한 거야, 뭐야?

이 전사 자료를 보면, 6시 30분 부터 34분까지 KAL 007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 그러나 6시34분 부터 또 다른 염려가 여러 지휘소에 나오기 시작한다. KAL 007이 레이더 반경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요격기들은 육안으로도 레이더상으로도 KAL 007을 놓쳤다. 그러나, KAL 007이 비행 도중 폭발한 것이 아님은 소련 레이더 추적 기록에 분명히 드러난다. 최소한 6시 38분까지 KAL 007기는 계속 비행했다. 교신 기록까지 참고할 것도 없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미 국무부와 유엔은 KAL 007이 미사일에 맞은 후 최소한 12분 동안 공중에 떠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르누코프 (18:32):

23 [미그 23] 에게 말해... 후기 연소기를 가동시키라고. 발사하란 말이다. 목표물을 파괴시키고 기지에 착륙시켜.

게라시멘코:

알겠습니다.

코르누코프:

고도... 우리 전투기 고도는 얼마고 목표물의 고도는 얼마가?
빨리. 목표물 고도와 우리 전투기 고도는?...

왜 아무말도 안하는 거야? ... 게라세멘코!...

게라시멘코 (18:33):

목표물의 고도는 5,000입니다.

코르누코프:

5,000? 벌써?

게라시멘코 (18:34):

분명합니다. 좌측으로 돌았다 우측으로 돌았다, 분명히...강하중입니다.

미사일 폭발 8분 후인 6시 34분, '공격' 레이더는 007기를 놓쳤고 다시 찾지 못했다. 그 시간에 KAL 007은 16, 400피트(5,000미터) 고도에 있었다.

코르누코프:

파괴하라. 23기 [미그] 를 썬라. 파괴하라, 명령이다!

게라시멘코:

알았음. 목표물을 파괴하라.

코르누코프:

이런, 전투기는 어디 있는 거야? 목표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게라시멘코:

장군 동지, 목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르누코프: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코박 2분 동안 레이더 기지들은 차례 차례 질문에 대답하면서 KAL 007기의 항적을 놓쳤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 다음, 미사일 폭발 10분 후인 6시 36분에, 코르누코프 장군은 KAL 007기의 정확한 위치를 말한다. KAL 007은 모네론 섬 상공에 있었다.

코르누코프: (18:36)

오, [육설] 글썬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 모네론 상공에 있어.



Moneron Island

KAL 007기는 사할린 섬 상공의 소련 영공을 벗어나 공해 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 모네론 섬으로 다가갔다. 이 때는 소련 사령관들이 007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수색' 작전은 사실상 구출 작전일 수밖에 없다.

티토브난: (18:38)

모네론 섬 근처에서 목표물을 놓쳤습니다, 중령 동지.

노보셀레츠키:

모네론 섬 근처에서?

티토브닌:

두 전투기 조종사 모두 놓쳤습니다. 무선 부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 목표물이 우측으로 돌면서 모네론 섬 상공으로 들어갔다고 무선 기술 부대에서 보고했습니다.

노보셀레츠키:

음....

티토브닌:

강하 중입니다. 그리고 모네론 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노보셀레츠키:

그래, 임무. 목표물이 이제 다시 우리 국경선을 침범했다고 했나?

티토브닌:

모네론 섬 인근이니까 물론 우리 영공입니다.

노보셀레츠키:

잡아! 잡아! 빨리 미그 23기를 불러 들여.

티토브닌:

알았음. 미그 23은 해당 지역에 있으며 현재 5,000 [미터] 로 강하하고 있음. 명령을 전달했음. 발견 즉시 파괴하라.

모네론 섬. 모네론 섬 상공에 KAL 007이 있다고 파악했다면 그 판단은 정확했다. 모네론 섬은 타타르 해협에 있는 바위 섬으로 대략 남북으로 길이 4.5 마일, 폭 3 마일 정도 되는 작은 섬이다. 이 섬은 사할린의 항구 도시인 네벨스크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약 30마일, 사할린 인접 해안에서 정방향으로 서쪽 약 26마일 지점에 위치한다.

1991년 KAL 007에 관한 소련 관영지 <이즈베스티야>의 연재 기사에 실린 목격자 증언과 어부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KAL 007은 모네론 섬 주위를 두 번 선회했다 (일급 비밀/코드명 CIA 공화당 의원 연구서, 49쪽). 그 모습은 KAL 007이 나선 강하, 다시 말해 빙빙 돌면서 고도를 낮춘 것일 수도 있고,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선회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KAL 007의 비행 경로 범위는 4마일 길이의 모네론 섬보다 많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여객기는 원활한 구조 작업을 위해 모네론 섬 아주 가까이에 착륙하고자 선회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KAL 007이 소련 측에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을 때 '모네론 섬' 상공에서 '강하 중' 이었던 점을 기억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러한 정황에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1. 소련 측이 보낸 '수색' 임무는 구조 임무였을 수 밖에 없다.

2. 미국과 일본이 모네론 섬에서 적어도 12.5 마일 이상 떨어진 공해 상에서 22.5 평방 마일에 걸친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수색 구조 작업은 성과가 없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성과가 없었다).
3. 모네론 섬에서 북쪽으로 17 해리 떨어진 북위 44° 33' 32"-동경 141° 19' 41"의 공해 상에서 수행된 소련 측의 인양 작업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였을 뿐이다

주석: 미국과 일본이 펼친 헛된 수색 구조 작업은 9월 8일 일본 주재 소련대사 블라디미르 파블로프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KGB 수뇌 체브리코프와 국방 장관 유스티노프가 소련 수상 유리 안드로프에게 보낸 1983년 11월 "일급 비밀 서한"에서도 소련 자체의 수색 구조 작업 뿐 아니라 이 정보 또한 소련 측의 기만과 주의 분산 시도였음을 증명한다. 이 서한은 "현재 미국과 일본을 현혹시키기 위한 우리 측의 가장 수색 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이 활동들은 특별 계획에 맞추어 중단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사실상 소련 민간 잠수부들이 -스베스타폴 지역 주민들-이 9월15일 KAL 007 수색을 위해 잠수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가장 수색 작업을 11월까지 지속했다! 게다가 이들 민간 잠수부들은 소련 해군 잠수병들이 그들보다 이미 훨씬 일찍 작업했었다고 보고한다! 소련의 기만 행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KAL 007, 미군 제7 함대, 그리고 대 러시아의 계략을 참고.